

韓國民謠의 類型構造에 관한 論議

左 惠 景*

目 次	
I.	序
II.	類型構造
III.	類型的 實際
IV.	類型的 展開
V.	結

I. 序

한국민요는 그것이 생성되고 있는 현상이 서술체를 통하여 나타나는가 하면, 서술체의 기호체계 역시 그 언어적 질서에 의한 구조체계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체계를 바탕으로 민요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전체적인 한국민요의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이 된다. 즉 민요의 지역이나 기능에 따른 총체성을 강조하여, 이에 의해 나타난 통합체계인 대서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의미단락으로 구성된 문장들간의 구조적인 특징에 힘입어 구

* 濟州大學校 國語教育科 講師

조화된 여러 유형을, 전통적인 전수와 계승이라는 자체의 화용법에 따라 그 속에 내재한 언어 문화의 게임들이 가족으로 존재"¹⁾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의 주된 관점은 공유물로서의 고정체제의 인정이다. 체제는 집단 의 산물로서 나타나는데, 개인의 참여와 공동제작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공통적인 개념구조를 갖고 시대를 거쳐 전승하고 전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승을 통한 파생적인 개념은 유형구조적인 의미화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의 민요는 의미구성상에서 보면 병렬체적인 구조와 통합체적인 두 양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 노동을 위한 기능성을 지닌 노래들인 경우와 노동의 기능과 더불어서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경우, 그 구성은 의미 지향의 방법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유형구조를 취하는 노래의 종류와 그 구조, 전개과정을 살핌으로써 서술체의 유형내부에 접근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민요의 시학중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다.

II. 類型 構造

민요를 문학적으로 이해하려면 민요 사실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상호적인 통합과 분석이 요구된다. 이것은 사실에 내재한 여러가지 일관성의 모델에 의 의존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으로 이러한 모델을 바르트는 <규약>(code), 이저는 <형태>(Gestalten), 흐르쇼프스키는 <준거체계>(Frame of reference), 에코는 <텍스트의 상호체계>(intertextual frames), 페리는 <틀>(frame) 등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이 기호의 개념은 모두 유사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요에서는 유형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이는 한 주제를 이루기 위한 동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1) 도정일, 「포스트모더니즘 - 무엇이 문제인가」, 「창작과 비평」 제19권 제1호 (창작과 비평사, 1991), p.308.

유형은 문학적 언술의 몇몇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이야기이나,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고 구조적인 특징에서 판별 규정되는 것이라서, 이론적인 성찰을 위한 것이므로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시학의 대상이다.” 조동일은 서사민요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개념을 민요에 처음 시도했는데, 단락들의 관계를 유형 구조라고 하고, 유형구조가 같은 각편들은 동일한 유형에 속할 뿐 아니라 유형적인 차원의 주제에서 일치한다고 했다.”

유형의 연구는 하나의 서술체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유형구조의 추출은 다음의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유형구조를 이루는 세부 단위를 각각의 의미단락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로 구성된 경우와 여러 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살필 수 있다. 즉 이러한 것은 창자의 구연에 의한 구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구성의 결과를 서술체라고 했을 때, 의미단락의 각각이 단독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공통유형 혹은 이질적인 여러 각편의 결합으로 완전한 큰 구조를 형성한 구성물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그 구성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전자를 분류하기 쉽게 하위구조라고 하고, 후자를 상위구조라고 한다면, 우선 이 두 구조는 서로 이질적이거나, 하위가 상위를 위한 재현이 된다. 이러한 하위구조는 민요의 사실의 유형구조를 이루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위구조는 상위를 인식할 경우에 그것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도 하나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병렬의 방식으로 각 유형이 구성되고 있고, 상위구조와 이질적인 것 역시 다른 서술체와 같은 위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유형이 동일 기연과 지역에 의한 통합체의 구조를 형성하여 거대한 유형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2) 토도로프, 「構造詩學」(郭光秀역, 문학과지성사, 1985), p.177. 유형이라는 용어와 좁은 의미의 장르라는 용어가 혼동이 생길 수 있으나, 장르는 문학사에 존재했던 문학유형, 한 시기의 문학체계의 부분을 이론 유형을 말한다.

3) 趙東一, 「敘事民謠研究」(계명대출판부, 1983), pp.66-67.

1. 병렬체적인 구조

서술체는 유형들의 집합으로 구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탄생된다. 의미 단락으로 구성되어 병렬체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기능성 만을 표출한 민요에서 특히 그러하며, 대부분 노동이나 의식의 기능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선후장에 의한 의미단락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각편은 개체의 현실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 사건질서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시점에 따라서 무의도적이며 표피적으로, 기존의 체계와 무관하게, 현장성에 따라 구성되는 미학인 셈이다. 이런 유형의 공통된 유형을 기존의 구연된 서술체의 유형구조에서 찾아 나눈다면 아래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개체미학의 공통점은 상·하위의 구조체계가 서로간에 이질성을 혹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유형구조 속에 나타나는 예들을 하위의 의미단락을 중심으로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은 것을 살필 수 있다.

1) 기능성에 대한 풀이

여기도	꽃고
저기도	꽃고
너도	승그고
나도	승그면 (브3/나주모심기) ⁴⁾

우장삿갓을	허리에매고
눈에얼어져	지심매고 (브3/나주 김매기)

4) 브리태니커, 『뿌리깊은나무 팔도소리』3권(브리태니커, 1989) 나주모심기 노래 참조. 이하 동일.

韓國民謡의 類型構造에 관한 論議

뒤로 예화	뒤로 예화
물러서고 예화	뒤로 예화
물러서고 예화	보릿대가 예화
나간다 예화	때랴요 헤 (브2/고성 도리깨타작소리)

일반적으로 기능요는 그 기능성을 묘사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모듈 심는 일을 나타내거나 혹은 김매는 일을 한다는 기능 현장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묘사는 가장 직접적인 사실의 나열이라고 할 것이다. 또 즉물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사물은 시적 의장을 걸치기 이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꾼들이 각각의 기능에 따라 사실을 현장에서 재구성하고 있으므로, 사실만을 보고서도 무슨 기능의 노래인지 확실히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러나 속도에 따른 사실 구성의 변화와 동일의 기연에 의해서 불러지더라도, 시간대에 따라서 혹은 일의 순서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 즉 모노래일지라도 모판을 쪼면서, 모듈 심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다르고, 김매기 노래일지라도 초별김을 매면서, 그리고 두별김을 매면서, 혹은 아침, 점심, 저녁, 일을 마쳐서 부르는 노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곡과 사실이 아주 달라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창자들의 일에 대한 느낌이 상황에 따라 달라짐에 의한 것이다. 부르는 노래가 달라진다. 이러한 것은 같은 기연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달라짐을 입증한다. 이는 노래에 대한 창자층의 관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깊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시간 묘사

첫새벽에	일어나서
오호헤라	사뉘여 (브3/나주 모찌기)

일락서산 해는 뚝 떨어지고 황혼이 되었는데
동령구름속에 달이몽게 두렷이 저기 솟아온다.예해(브2/경기 잣은산타령)

더디다 더디다 점심채미가 더디다
더디다 더디다 점심채미가 더디다(브2/고성 농사짓기)

시간의 묘사는 노래의 종류마다 아침, 점심, 저녁 등 시간에 따라서 부르는 시간이 정해진 기능성을 지닌 노래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 나타난다. 이는 노래하는 사람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감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경상도 고성지방의 <모심기 소리>나 <논매기소리>에서는 기능성을 표출할 뿐만아니라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으로 고정화됨을 볼 수 있다. 모심기 소리에는 긴둥지, 점심둥지, 해거름 둥지가 있어서 점심 때에 부르는 노래가 다르고 저녁에 부르는 노래가 다른 것이 있는데, 이는 시간에 의해서 노래의 종류를 달리하여 더욱 더 시간적인 요인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하루 일의 진행을 노래의 내용 속에 담고 현상 속의 한 노래로 남는 역할을 하게 한다.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설에 나타나는 어휘는 '-한다', '-다', '-하네'의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하여 시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사설의 대부분이 기능과 동시에 구연되고 있으므로 현재진행의 시제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공간 묘사

비문어 오네 비문어오네
진장산 중허리에 비문어오네(브3/옥구 김매기)

비가 올 듯허나네 혼척시 설령 씨부령 가불라 가물.월월월월……
(브3/성읍 농사짓기)

韓國民謠의 類型構造에 관한 論議

좌우산천 바라보니 청산은 만첩이요 녹수는 구곡이라
미륵은 쌍유 송죽간이요 일출동방 불로초라
그곳에 온학이 장유하니 선정일시 분명하다, 예해(브2/경기 잣은산타령)

시간적인 묘사와 더불어 공간의 묘사 역시 기능요의 유형 속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노래가 불러지는 지역성과 더불어 '여기'라는 배경을 묘사해서 더욱 노래를 실감나게 하고 부르는 사람과 공동 집단체임을 확인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공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그', '저'라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할 때도 있으나, 민요에서는 지시대상이 고정되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반드시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동작 묘사

먼디사람 달기 좋고
에이 싸오
옆의사람 보기 좋고
에이 싸오(브3/옥구 김매기)

짚어라 배겨라, 헛
짚어라 와(배)겨라
퐁퐁 짚어라, 헛
퐁퐁 짚어라
저어라 저어
저어라 저어(브3/김령 고기잡이)

영천 초목에 호매야 손들놀리소
줄이자 줄이자 이모자리로 줄이자(브2/고성 모찌기)

일반적으로 민요의 기능에 따른 동작의 묘사는 기능에 따라 전개되고 있을
을 볼 수 있다. 이는 기능의 성격이 바로 동작의 묘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것들에는 열 사람들과 협동으로 김을 매면서, 배에 노를 저어
가면서 이루어지는 구연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나타나는 사실적인 특성은 자
연상태에서 토해내는 무의도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다.

5) 작업도구 묘사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교사공아

한쪽손에 한쪽손에
태왁울메고 태왁울메고
한쪽손에 한쪽손에
비창울둘라 비창울썰라(브3/김령 고기잡이)

들어내세- 들어내세에- 이모자리 들어내세
에워내세- 에워내세에- 이종판울 에워내세(브2/고성 모찌기)

이방아는 뉘방아나 에이허여라 방아호
경신년 경신월에
경신일 경신시에
강태공의 조작방아
지초창생 한연후에
탄금대가 여기로다(브2/중원김매기)

작업도구에 대한 묘사는 작업대의 설치, 작업도구의 사용방법, 작업도구의
내력, 작업도구의 쓰임 등이 자세히 묘사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일마다
작업 도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은 일의 기능에 따라서 고정

韓國民謠의 類型構造에 관한 論議

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기능의 노래에서는 동일한 유형으로 대부분 노래의 서두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6) 구연 상황 묘사

다되여 간다네 다되여 가네
서말배미가 다되여 가네(브3/나주 잣은모심기)

떠들어오네 떠들어오네
점심광주리가 떠들어오네(브3/옥구 김매기)

초당에 곤허 든 잠 학의 소리놀라깨니 그 학은 간곳없고
들리스니 들소리라, 예헤(브2/경기 잣은산타령)

상황의 묘사는 위의 여러 요인을 거의 포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의 진행 정도라든가 창작자와 수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제반의 상황을 말한다.

7) 개인의 감정

산유화야 산유화야 궁야평 너른들에 논도많고 밭도 많다.
씨루리고 모을겨 충실허니 가꾸어서 성실허게 뺏어보새(브2/부여 모심기)

꺾랑좁쌀애에이힐니어시머경
이어이언이얼이어동하라
다슴어멍애헤이영말어시살랑
이어이언이얼이어동하라(브3/성읍 땃들소리)

아래웃는 모꾼들아 예에헤 춘삼월이 어느때고
우러님이 가실적에 춘삼월에 오마더라(브2/고성 모심기)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진술(narrate)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병렬체적인 구조에서는 기능과 시·공의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창작자의 주체적인 서정표현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기능요 중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서를 노래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노래의 속도가 느린 것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즉 일을 위한 작업 동작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잦은 소리를 할 경우는 단지 기능을 위한 사실이 전개되지만 노랫가락이 늦어짐에 따라서 점차 자아를 향한 사실을 부를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면 같은 기연의 김매기 소리인 경우도 충청도 〈중원김매기〉에서는 부르는 속도와 절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초벌김매기인 경우 속도를 느리게 해서 부르는데, 이 때는 자아의 세계를 노래하여 서정적인 사실구연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나 빨라지면 단지 작업을 위한 사실만이 전개되는 것이다. 즉, 처음에는 박마다 소리를 한없이 늘인 선소리를 부르기 때문에 즉자적인 사실 구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긴방아타령〉을 부르다가 속도를 중간쯤으로 한 증거리, 김매기가 막판에 이르면 〈잦은 방아타령〉을 부른다. 구연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즉물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⁵⁾ 이처럼 사실은 노래의 속도 변화에 따라서 구연양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의 의미화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위의 유형들은 작은 의미단락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되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서술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서술 구조를 형성하여 수많은 서술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유형은 노래의 종류에 관계없이 등장할 수 있으나 기능성과 작업도구, 혹은 작업대의 묘사 중의 유형은 재구성할 기

5) 민요에서는 보편적으로 자아의 서정을 노래하는 유형과 기능을 위한 목적으로 일의 진행과정이나 기능을 노래하는 유형이 나타난다. 여기서 전자는 자아의 세계가 노래되고 있어서 자설적이고 언술의 내부의 기호체계는 인간의 서정을 통해서 바라는 시적 세계 속에 존재하는 즉자적인 성격을 지니는 데 반하여 후자는 타설적이고, 즉물적인 기호의 나열이라는 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능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형은 병렬체적인 구성으로 서술체가 탄생되는 경우가 우선이며 이것이 다시 거시적인 범주 속에서 통합된다면 하나의 거대한 상위구조 속에 소속될 가능성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구조로 이루어지는 개개의 각편은 하나의 구조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오랜 기간 공동의 호흡에 의한 전승력에 힘입어 자체의 구조를 지키면서 전승될 것이다.

2. 통합체적인 구조

통합체적인 관점에서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구조는 하위가 상위에 속하거나 혹은 상위의 재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가창구연의 특성 요인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한 창자에 의해서 불러지는 노래들은 비록 다른 종류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도 그 내용은 상당히 넘나들고 있다. 그것은 창자 내부의 저장고에 있는 사설이 구연되는 것이 일정하게 그 능력의 한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기능을 위한 노래를 부르더라도 거기에 자신이 부를 수 있는 다른 각편의 사설과 의미관계를 맺으면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에 예들 든 <모심기 노래>⁶⁾는 이러한 특성을 잘 드러낸다. 이 각편은 모심기를 위한 기능요이나 바느질을 할 때 부르는 <춤노래>와 <달노래>, <서울선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사모요> 혹은 <백발가>, <성주풀이> 등에 나오는 사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단락을 교묘히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른 창자는 이러한 노래들의 사설을 기억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할 때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뜻한다.

6) 정상박·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 8-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하청면 민요 41.

여기서 각편의 의미단락의 구성은 비록 의미가 다른 각각의 주제에 의한 노래의 집합체이나 기억력이 좋은 청자에 의해 비축된 의미들을 재창조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서술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자신에 의해 의미를 연결하고 있어서 하나의 각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의미단락⁷⁾에 의한 연의 구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부르는 자유자재의 구연이다.

ㄱ

이논배미 모듈심어 상사아디어
 금울금실 영화로다/⁸⁾
 왼손에라도 파란모침/
 오른손으로 전하시오/
 맹근장파도 너린들애/
 뉘성뉘성 꺾아주소/

ㄴ

오늘에도 점심의반찬/
 무신자반이 오릴라오/
 마산포라도 고등애청애/
 마리반석도 울렀다요/
 지리산가리산 연지봉애/
 점심고리가 올라오네/
 지게오는도 저점심은/
 우리점심은 안오드나/

| |

- 7) 여기에 나타나는 의미단락의 하나를 따로 떼어 볼렀을 때도 한 각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의미단락은 하나의 연과 동일함을 뜻한다.
 8) /표시는 반복되는 후렴의 표시임.

韓國民謠의 類型構造에 관한 論議

ㄷ

충청도라도 중복승을/
주지가지도 열렸다고/
강남땅에도 강대추는/
아계자계가 열렸고나/
하늘밭에다 목화로숨겨/
목화따로다 누갈라꼬/
| |

ㄹ

구경가자 구경가자
달뜨는데로 구경가자
강남경포대로 구경가자
강남경포대 들어가니
경치도 좋고 귀경도 좋네
해도뜨고도 달도뜨고

ㅁ

저게저게 저달속에
계수나무가 백하고있구나
동쪽으로 뻗은가지
옥도치로 선득비어
금도치로 따듬아서
| |

ㅂ

올어머니 날가질제
죽신너물 원하더니
그죽신커서 왕대되어
왕대끝에도 학이앉아
학은점점 젊어오고

울어마씨 늙어가네
늙는양은 싫잖은데
세는양이도 더욱싫네

入

이팔청춘도 소년들아
백발보고 반대마라
어제청춘 오늘백발
실으고도 한심하네

○

저건네라 잔술밭에
뿔뿔기년도 저포수야
오만짐승을 다잡아도
금비둘기는 잡지마라
날강같이 입을읽고
입찾는다고 뿔뿔기네

入

오독오독 나는죽신
타박타박도 끊겨다가
움마야고도 울고가네
울음매는도 간데없고
눈먼새가도 대답하네
새야새야도 수전도라
눈물받아서 봉지로짓자

入

저계도가는 저구름아
입들었나 비들었나
입도비도 아니들고
노래명창도 내들었네

위의 예는 여러 노래의 의미단락이 연쇄적인 고리로 이루어져서 의미의 일관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나, 하나의 의미단락이 빠지거나 또는 다른 단락이 삽입되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무의도적인 구연으로 구성상에서 이루어지는 유형의 전개이다.

의미단락 별로 하나의 서술체는 여러 개로 구분되고 있다. 여기서 ㄱ, ㄴ, ㄷ은 기능요가 지닐 수 있는 시간 묘사와, 화자의 상황 확인 등이 나타난 예이다. 이는 병렬체적인 구조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유형들이며 또한 나머지 단락들은 통합체적인 구조 유형에서 볼 수 있는 '안정'과 '고난' 그리고 '극복'의 모티브에 속하는 유형들이다. 이처럼 한 서술체 속에 다른 의미들을 지닌 유형들이 통합되고 있지만 어색하거나 부조화됨이 없이 그 구조 내부에서 어울리고 있다. 기능묘사를 위한 것들은 하위구조가 상위를 위한 구현이며, 상위는 통합체의 구조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 준다. 즉 여기에 드러난 ㄷ, ㄹ, ㅁ은 '안정'을 묘사하고 ㅂ, ㅇ, ㅅ, ㅈ의 유형은 '고난'에 속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서민들의 보편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고 상위구조 속의 한 단위를 차지한다.

둘째, 같은 지역 동일한 기연에서 불러지는 노래는 여러 창자에 의해서 불러졌지만, 집단내부에서 공유될 수 있는 동일한 공통유형을 지닌 노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묶어서 동일한 서술체로 간주하여 연구될 수 있다. 이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생성된 산물이며 사회에 존속하기 위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작품, 즉 하나의 서술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개의 작은 의미 단락을 형성하여 구성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작은 단락의 의미는 여러 각면에 동일한 모습으로 산재하고 있어서 이러한 각편은 같은 범주 내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여러 각편을 통합시켜서 나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단된 하나의 서술체는 큰 단위 단락과 작은 단위의 소단락으로 구분되는데 큰 단락은 공통성을 지니며 소단락에 따른 내용이 달라져도 일정한 유형구조는 유지된다. 대부분 이러한 의미의 연쇄는 추상적인 요소와 구체적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전자는 주지소(motifeme)의 역할을 담당하고, 후자는 이지소(allomotif)로 대조되어 나타난다. 각 작품의 큰 단락은 주지소의 성격을 지니며, 이것은 동기작용(motivation)에 의해서 내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주제의 차원에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성의 순서는 큰 단락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고, 소단락에 의해서 실제로 구성된다.

이러한 노래의 종류는 기능성을 면 노동요하고 할지라도, 기능성보다는 개인적인 삶의 표출이거나 개인의 정서 중 '고난', '극복'의 삶의 토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래의 종류와 통합체적인 구조에 따른 유형구조를 살펴보면 그 예는 다음과 같은 것에서 살필 수 있다.

경북지방의 길쌈노동과 함께 불려지는 <길쌈노래>는 시집살이를 내용으로 한 노래이다. 이 노래의 서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연구한 趙東一의 「서사민요 연구」는 이러한 통합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래를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이 구조 속에 내재한 여러 유형은 지역과 기능에 의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하나의 서술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체 속에서 각각의 의미단락을 나누어 보면 소단락으로 구성된 하위유형의 서술체들이 있다. 이 노래는 분석의 결과를 아주 흥미로우면서 논리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연결된 스토리와 잠재화 된 인물, 그리고 그 인물들의 성격이 나타나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체적인 구조속에 나타난 상위구조는 고난 - 해결의 시도 - 좌절 - (해결)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회적, 미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좌절을 극복하고 고난을 해결하자는 강한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서민 문학으로서 현실의 발전 법칙을 예술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고, 강한 감동을 주며, 진실된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⁹⁾

이와 비슷하게 설화와의 교섭을 거치면서 자라난 것으로, 여러 서술체로 산재한 것을 통합해서 찾아보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사모요」를 들 수 있고, 제주지역에서 흔히 불려지는 「평노래」등의 통합체적인 구조에서도

9) 조동일, 앞의 책, pp.93-94.

韓國民謠의 類型構造에 관한 論議

서사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하나의 서술체로 구연되었지만 그 구조를 전부 갖추지 않은 「평노래」의 구연이다. 평노래 서술체의 통합은 안정 - 위기 - 절정 - 극복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안정된 삶에 위기가 닥치나 이를 피하여 극복하는 유형으로 전개된다. 아래의 예는 '절정'의 부분이 없는 유형으로 되어 있음을 볼 것이다.¹⁰⁾

평평 장서방	어찌어찌 살았소
그럭저럭	살았소
내가어찌	못살리오

오년목은	그르밧디
삼년목은	그르밧디
이엄이엄	댕기다보니
순지같은	불망대기
이래뻗쩍	저래뻗쩍
날잡으레	오는채시
훈글훈글	들러매고
훈착눈은	쟁기리고
두착눈은	지시멍
뿔씩뿔씩	들어온다
이만호른	홀수웃다

훈상전의	굽아불라
이천장의	집을지엄
삼천장의	올래내영
올래질렁	대문내영
대문뒤랑	뵈문호영
뵈문돌라	장항심건

10) 拙稿, 「民謠辭說의 敘述의 構造」, 「平沙閔濟先生華甲紀念論文集」(간행위원회, 1990), pp.368-370.

장항우의	너덜울렁
너덜울린뒤	죄기울렁
죄기울린뒤	예장하라
예장첩에	사랑하라
사랑첩에	예장하라
종년아	상드리라 ¹¹⁾

이 노래는 우화 소설의 기법을 사용하여, 문학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동요의 단순한 형태에서 민요, 설화, 고대소설의 장르를 넘나들면서 여러 유형들이 모티브로 연결되어 인간사를 평의 삶에 의탁해서 전개되고 있다. 개인 주체의 서정의 형태가 일정한 유형의 사회집단과 인간관계로 정의되는 서사적 세계에서 갈등과 충돌의 극적인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승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술들은 창자의 감정이나 인지 수준에 따라서 장르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즉 통합체의 구조 속에서 고대소설의 유형을 전개하는가 하면, 그 반대로 <장끼전>의 해체과정으로서 구전되던 소설의 형태가 창자의 기억력이 미약으로 일부만이 불러진다가거나, 혹은 음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구조에 따라서 거기에는 여러 개의 하위구조의 유형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스토리를 지닌 거대한 서술체의 분석은 스토리의 플롯의 통일을 위한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통합체적인 분석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다음은 스토리의 연결이 없이 기능을 위한, 혹은 자아를 노래한 서정성이 있는 노래의 구조와 그 유형들의 구조는 어떻게 추출될 가능성을 지니는가 살펴본다.

제주 지방의 <맷돌방아 노래>를 그 예로 들어 논증하고자 한다.¹²⁾ 이 노래

11) 필자채록, 1989, 제주도 애월읍 광령리 한술생(여·90)

12) 任東權, 『韓國民謡集 I』(집문당, 1975), 325-393번의 자료.

이 자료는 한 사람의 창자에 의한 구연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일지역의

韓國民謠의 類型構造에 관한 論議

는 제주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여러 개의 의미단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단락에 의한 유형의 집합을 하나의 상위구조로 보았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각각의 의미단락의 분석에 따라 이루어진 유형을 추상화한 구조는 다음의 몇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는 비록 다른 창작에 의해서 불렀을 경우라도 이 통합체적인 구조 속에 포함된다. 이러한 구조는 오랜 시간 이 공간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난 하나의 산물이며, 이는 고정화되어 전개되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의미소들 포함한 의미단락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추상화된 고리는 몇으로 구분된다. 우선 하나의 통합체 구조 속의 각편을 의미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이 전개된다.

이허도러라	이허도러라
이허이허	이허도러라
이허도가면	나눈물난다
이허말은	말아서가라

울며가면	남이나웃나
대로한길	노래로가라
갈때보니	영화로가도
돌아올뎌	화병이러라

일천간장	석은물은
눈에올라	눈물이러라
눈에눈물	새한숨아니면
내눈물은	어디가질고

옛들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므로, 어느 창작자에게 수집하더라도 여기에 속한 각편을 몇 개는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한 개의 서술체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구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새는	낮에도온다
어떤새는	밤에도온다
요새저새	날같은새야
밤낮몰라	우염새리타

임과닭은	없어도산다
날난죽어	닥발에물영
나우에랑	조허다나건
입천선비	글발에늘게

위의 <멧돌방아노래>에 나타난 유형을 상위구조에 따라서 그 유형들을 분석해 보면 이 노래는 일반적으로 안정-고난-극복(체념)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각 의미단락들이 내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큰 체계는 창자들의 서술체의 구연을 이와 같은 구조 속에 존속하기 위해 조건이 부합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구조는 보편적으로 고정되고, 안정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유형에 속한 하위의 의미단락은 서술체 구연에서 재구성요소로서의 자질을 지닌다. 언체든지 창자의 필요에 따라서 동원이 가능하고, 전체의 구조를 위해 한 유형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 각 유형구조 중에서 고난에 속한 의미단락이 자주 등장하며 많은 편이다. 이는 이 노래를 향유하고 있는 창자군이 서민들이며, 이들의 삶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생활의 현실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민문학의 일반적인 경향은 고난에 의한 좌절은 좌절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극복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고난에 의한 좌절의 양상은 그 고난이 얼마나 완강하고, 또한 역설적으로 극복의 의지가 얼마나 완강한가를 비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멧돌방아노래>는 다른 창자에 의해서, 혹은 다른 유형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거대한 서술체인 통합체의 구조 속의 한 유형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 결과 제주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공동체적인 작품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인의 서정이 혹은 삶의 모습이 가장 보편성을 띠고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산물이며 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Ⅲ. 類型의 實際

유형의 구조가 서술체의 원점지향이라고 한다면, 구조 속에서 각 유형이 전개되는 과정, 즉 서술체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유형의 실제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의 모습은 상위구조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재현된 하위의 실체를 찾으면서 사실이 전개되는 양상과 구연의 역학(dynamics)을 찾는 것이 된다.

유형구조 속에서 추출될 수 있는 모티브들은 다음과 같이 추출 가능하며, 이러한 주지소들에 따른 여러 개의 이지소에 의해서 하나의 유형은 탄생하게 된다. 그러한 유형 구조를 바탕으로 그 요소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병렬체적인 구조 속에 내포하는 주지소에 따른 이지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기능성

- A1 기능의 종류
- A2 기능의 속도
- A3 일의 과정
- A4 기능을 행한 이후의 휴식

B: 시간

- B1 아침

B2 점심

B3 저녁

C: 공간

C1 전경

C2 날씨 혹은 기후

C3 풍광

D: 동작

D1 기능성에 의한 것

D2 일의 진행

D3 힘을 모으기 위한 것

D4 힘을 덜 들이기 위한 것

E: 작업도구의 묘사

E1 작업대의 설치

E2 작업도구의 사용 방법

E3 작업대의 내력

E4 작업 도구의 용도

F: 상황의 묘사

F1 일의 진척 상황

F2 창자와 청중의 위치 확인

G: 개인의 경서

G1 풍년의 기원

G2 교훈적인 것

韓國民謠의 類型構造에 관한 論議

G3 님을 그리워함

G4 여흥

H: 언어유희

P: 기능성에 의한 병렬체의 하위구조

P1 서두

P2 결사

P3 후렴

위의 주지소, 이지소에 따라서 구성되는 유형을 실제 구연된 각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작위로 예들 든 <모찌기 노래>¹³⁾의 자료는 아래의 유형으로 탄생된 서술체라고 할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그날 심을 양의 모를 절 때 부르는 노래이다. 여러 사람이 두 패로 나뉘어서 댓구가 되는 구절을 주고 받으면서 노래한다. 그 유형구조는 A1-D2-P3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기능성에 관한 것과 후렴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많은 서술체가 여러 유형 요소의 조합으로 의미단락의 병렬체적인 구성을 하면서 수없이 탄생되고 있고, 이는 기존의 어떠한 체계 내부에 존속하기 위한 구조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한국민요의 통합체적인 서술체의 유형구조 속에서 추출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각각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공통 유형을 상위구조로 삼고, 그 이지소들을 살필 수 있는 기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유형은 수없이 많다. 여기서 거대한 서술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지역의 <맷돌방아노래>의 유형 요소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13) 정상박·유종목, 앞의 책 8-1, 신현음 민요10.

P: 기능성에 의한 병렬체의 하위구조

P1 서두

P2 결사

P3 후렴

Q: 안정된 삶

Q1 자식구존

Q2 내적인 평정

Q3 물질적인 풍요

Q4 부모 형제 구존

Q5 애정, 사랑

Q6 사회상

R: 고난

R1 님의 상실, 이별

R2 고통

R3 생활에서 오는 고통

R4 시부모의 학대

R5 현실적인 가난

R6 운명적인 가난

R7 서울 낭군

R8 시집살이

S: 극복

S1 고난의 해결

S2 타를 원망

S3 죽음

S4 운명의 소관

S5 좌절

韓國民謠의 類型構造에 관한 論議

그러면 이들 맷돌노래의 이지소와 주지소를 포함한 유형의 구성되어 서술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작은 각편의 예로서 위의 유형요소에 따라 다음의 구연 P1-R3-S4-P3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서술체는 서두를 상징하는 후렴에 이어서 현실적인 고난에서 오는 가난, 이를 운명의 소관으로 돌리려는 창자의 의지, 이 여러 각편을 매듭짓는 후렴구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서술체로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위의 여러 유형 요소들은 개개의 서술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의미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통합체적인 유형론적인 전개의 차원에서 하나의 서술체는 구연 당시, 창자의 의미단락에 의해 구조화시키는 구연 그 순간에는 여러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각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구연되어진 서술체¹⁴⁾에서 위의 요소들의 결합을 보자.

- P1-R8
 - P1-R6-S4
 - Q4-R1-S1-P2-P3
- | |

위에서 유형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창자가 부른 노래를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공유하면서 창자는 특수한 언어적인 규약과 그 문체와 그것이 함축적으로 전제하는 여러 각편들을 통하여 다시 선택하고 재구성하여 이미지를 형성한다. 즉 텍스트는 창자로 하여금 그 내부에 어떠한 창작 능력을 만들게 하여, 기존의 유형을 변화시키고 서술체의 개념이나 세계관까지도 바꾸어 재창작을 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자료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종합하여 재창작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독(청)자지향적인 접근이 시도될 수 있는데, 탄생된 서술체는 상위개념의 내부에 존재한 고유속성인 자율적인 대상에 의한 속성만을 가지는 가 하면, 의식에 의해 존재가 판명되는 타율적인 대상의 결합도 이루어진다고

14) 필자수집 자료를 대상으로 함.

할 수 있다. 여기서 타율적인 대상은 의식의 참여나 그러한 주체-대상과의 관계의 활성화 없이는 완전한 존재가 불가능한 것이다.¹⁵⁾ 또 탄생된 서술체는 일차적인 효과의 내재적인 요소를 결합하는 힘을 가지기는 하되, 통상 그것에 대립하는 기제(mechanism)를 설치하여 오히려 하나의 최근 효과(recency effect)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¹⁶⁾

IV. 類型的 展開

1. 순차적인 전개

언어는 기호의 선조적(線條的)인 배열을 불가피하게 한다. 즉 나타나는 어휘, 구, 문장, 문장 속의 개념 등도 점차적일 뿐만 아니고, 모티브인 여러 개념들이 텍스트 속에서 순차적으로 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구성된 서술체의 구조는 재구성을 하는 과거의 청자, 즉 현실의 청자에게 선험적인 경험을¹⁷⁾ 제공해서 일정한 순서대로 개념을 구조화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순차적인 전개는 스토리가 전개되는 시간에 의한 요인, 논리성에 의한 요인, 인과에 의한 요인들에 따라서 구성되어진 통합체적인 구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어머니를 잃고서, 혹은 기다리면서 부르는 <사모요> 계열의 노래는 하나의 유형씩 창자마다 다른 각편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이를 종합하면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고 있다. 즉 서정적인 노래들이 공동체적으로 실화적인 구성 과정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한다. 각각의 유형 각편은 통합체적인 사모요 계열의 노래로 모여서, 삼입되거나 연결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단위들이 인과론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15) S·리몬 캐넌, 『소설의 시학』(최상규역, 문학과 지성사, 1985), p.172.

16) A. B. Lord, *The Singer of Tales*, Atheneum NewYork, 1973, p.57.

17) 페리는 이를 일차 효과라고 하였다. 위의 책, p.53.

韓國民謠의 類型構造에 관한 論議

여기서는 <사모요>의 서술체를 분석하고 그 구조와 전개과정, 또 전개 의미를 찾아보자.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꽃과 잎의 관계로 민요에서는 자주 비유되고, 어머니와의 헤어짐은 들 사이를 갈라놓는 모성과의 이탈에서 그 동기가 되고 있다. 그러자 어린 동심은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의지로 가득차게 된다. 그러나 그 의지는 현실적인 벽에 의해 좌절되며, 그 좌절이 다시 극복의 과정을 취한다. 대부분의 노래의 첫부분은 다복녀(다박녀, 타복녀, 따복녀, 따박녀, 따분녀, 따복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문답의 형식을 취한다.

유형의 구조는 내용 전개상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기대1-죽은 어머니를 만나려함¹⁸⁾
- 좌절1-절대 만날 수 없음¹⁹⁾
- 기대2-돈으로 사려함²⁰⁾
- 좌절2-부모를 파는 시장은 없음²¹⁾
- 기대(기원)-상여나 달,기러기에게 하소연²²⁾
- 보상(극복)-무덤가에서 재령참의를 따먹음²³⁾

내용의 전개과정은 위의 유형구조에서처럼 만남의 기대는 불가능으로 좌절되고, 극복의 의지로 나타난다. 그런데 산이 높고, 물이 깊으며, 범과 귀신이 등장하여 만남이 불가능한 좌절을 겪게 된다. 그리고 난 후 돈을 가지고 어머니를 사려고 하지만 금전 만능의 경험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곧 다시 기원을 하게 되는데, 저승을 잇는 매체인 기러기, 달, 상여에게 하

18) 任東權, 「韓國民謠集」Ⅲ, 1556에 위의 유형이 등장함.

19) 金素雲, 「朝鮮口傳民謠集」, 1669번. 任東權, 「韓國民謠集」I, 자료 1554 참고.

20) 金素雲, 「口傳童謠選」, p.193

21) 위와 같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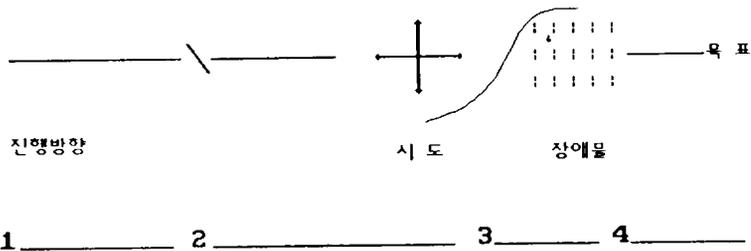
22) 任東權, 「韓國民謠集」I, 자료 1562.

23) 任東權, 「韓國民謠集」I, 자료 1556.

소연을 하게 되고, 어머니의 젖맛과 같은 재령참의를 따먹으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논리에 의한 인과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아동의 상황적 배경에 관한 것으로, 모성에 대한 이유 혹은 동생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리 모성이라고 볼 수 있는 조모와 가까이 있게 되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난 모성에 대한 적의를 승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사모요>를 부른 게 아닌가 한다. 이러한 설화적인 노래는 조모를 통해 구연되면서 아이들에게 구전되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만날 수 없는 어머니 대신에 참의를 따먹음으로써 욕구좌절을 보상하고 합리화시키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신적인 평형 상태에 이르는 적응과정이 나타나며, 환경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노력과 성숙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 구성은 보편적인 순차 구성의 인과론적인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은 목표4를 향하여 일어난 행동1이 그림과 같이 어떤 장벽으로 인해서 방해받거나, 반응을 받게 되면, 2와 같이 여러가지 반응을 시도한다. 그 러는 중에 3과 같은 진로를 선택하여 그 장벽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앞으로 추진하는 힘이 작용하며, 어떤 장벽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태와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도달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위의 구성은 통합체적인 구조면에서 인과론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창자들은 기존의 구연되었던 노래를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여 큰 서술체를 완성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간선상으로나 논리상으로 정연한 구조를 지닌 채 전개되는 것으로는 서사성을 지니지 않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의 예를 든 여러 기연에 따른 노래를 종합한 <모내기 노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는 재창조의 능력을 지닌 창작에 의해서 재구성되어, 이러한 선적이고 논리성을 지닌 노래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기능요 중에서도 <상여소리>나 <해녀 물질 작업 나가는 노래>는 상당히 논리적인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녀 물질 작업을 나가는 노래는 일반적으로 출가의 과정, 작업의 상황 등이 시간적인 순차성에 의해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⁴⁾ <상여소리> 역시 서두,본사, 후렴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위구조의 단락이 전개되는 모습은 삶의 행로를 따라서 시간적이며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여소리의 의미단락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

- 기능상황
- 회심곡을 차용하여 탄생을 묘사
- 부모은공
- 성장
- 탄노
- 죽음을 한탄
- 극락왕생을 기원²⁵⁾

이러한 삶의 행로에 따른 순차적인 진행은 즉흥적이고 상황적인 묘사에 논리를 부가하고 전승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능요 중에서도

24) 브리태니커, 앞의 책, 제주도, 김령 고기잡이 소리.

25) 조희용, 『한국구비문학대계』 1-6(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민요3.

순차적인 전개방식은 노동작업이 힘이 덜 들고, 장시간에 이루어지며, 혼자 이루어지는 노동 기능성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전개는 <바느질노래>나 <주머니노래>, <물레노래>, <길쌈노래>, <땀방아노래> 등에서 흔히 일어난다.

2. 상황적인 전개

일반적으로 개개의 창작자에 의한 서술체의 구연은 의미구성에서 살핀 것처럼 개인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의미단락의 구성은 통합체 구연에서는 논리적이고 인과론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 의미단락은 개별적으로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병렬체적인 의미전달은 순차적이지 못하다. 이는 의도적인 창작이 아니고 기능을 위한 상황에 따른 구연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통합체적인 구조에서 찾을 수 있던 수직적이고 논리성을 지닌 것들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구연이라고 한다면, 상황적인 전개는 즉각적이고 수평적인 상황의 반영물이며 현재, 여기들 대표할 수 있는 시·공의 미학을 지닌 셈이 된다.

이는 입체적인 전개인 기능과 사실 음곡의 총체적인 구연으로 사실 보다는 음악이나 기능에 의한 전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실은 기능이나 음악에 의해 끊기게 되고, 다시 연속되는 등 비논리적이고 상황적이다. 이는 순차적인 전개에 대한 해체(de-construction)가 된다. 여기에는 자아의 주관과 임의성, 우연성이 나타나고 주변의 것이 부상되는 등 현실 반영이 이루어진다.²⁶⁾

예요에서 살핀 바처럼 의미단락의 일관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모내기의

26) 박성창, 「포스트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현대예술비평』 창간호(현대예술비평사, 1991), p.106.참고.

민요에서의 상황에 의한 구연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념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 그래서 시·공간에 의한 구성물로서의 구연은 현장론적인 바탕하에 연구될 수 있는 점에서 개인작보다는 상당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기능성이 전개 되는가 하면, 모내기 작업의 상황, 작업하는 사람들의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정서나 인지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디후후야 시섬곡
가리갈가마구야
잔술발을 넘어
굵은 술발으로 넘어가는구나
허허후후야
가리갈가마구야이후후

동모네야 벗님네야
어서가자 바빠가자
점심도 늦어가고
술도 늦어간다/

산천 초목은 젊어가고
우리 부모는 늙어간다
공산낙목 일본토에
왕후 자제도 한번가면 구만이라.²⁷⁾

사실에 나타난 시공에 따른 자아 주체의 표현에서 시·공은 주체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 상황의 반영 뿐만 아니라 단락 내부의 작은 구조 속에서도 대조나 대립이 상반되게 구성되어 전개되고, 구연에 대한 반동 등의 언어유희적인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노래는 연의 구성상 3연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연의 현재적인 시간 표현이 다른 의미 단락과의 연관은 전혀 없다. 그러나 2,3연의 관계는 시간의 집착에 대한 반동으로 초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2연 내부에서도 의도적인 시간에 대한 의식이 상황에 따라 거부되고, 직접적으로 “바빠가자”, “늦어간다”는 순간

27) 任東權, 「韓國民謡集」I, 226번.

성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순간적인 표현은 3연에 와서 대립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연에 대한 인간사의 덧없음 혹은 순간적인 찰나의식이 죽음을 등장시킴으로 이러한 시간의 순간성은 극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 대조와 대립을 묘사하여 언어 유희적인 효과도 나타나 부르는 자들이 흥겨움을 북돋울 수가 있다. 이외에도 상황적인 전개는 문답체의 구성 중에서는 화자가 전이되거나 병렬행에서 발화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미를 따라 형성되지 않고 이미지 중심의 연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논쟁적이거나 연상적인 전개를 시도한다.²⁸⁾

이처럼 화자가 전이되어 의미단락이 반전되는 경우를 <이양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마지기	이논배미
반달같이	떠나간다
재가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문경새재의	박달나무
홍두깨방마치	다나아간다
홍두깨방마치	팔자가좋아
큰애기물팍에	늪어가네

비물었네	비물었네
진주덕산	비물었네
그것은	비가아니라
억만군사	눈물일세

오늘해가	다졌는가
------	------

28) 高惠卿, 「傳統民謠 辭說의 詩의性格 研究」(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pp.71-72.

韓國民謠의 類型構造에 관한 論議

산골마다 연기나네
우리아부모님 어디가고
연기낼줄 모르는고

저건너라 청기와집에
모시야적삼 걸려있네
모시야적삼 걸린집에
시집못간 내한이야²⁹⁾

위에서는 같은 기연에서 불러지는 노래의 의미단락을 동원해 보았으나 동일의 주체라든가 기능을 묘사하는 것보다는 화자의 즉각적인 상황에 의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단락 내부의 전개는 의미 전환이거나 연상에 의한 전개임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의미단락은 순차적인 각편을 전개할 때도 나타나는데 상황의 표현과 더불어 등장하는 기성에 이탈되는 언어유희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전개의 양상이 순차적이거나 비순차적이라는 것은 서술체 생산을 위한 노동기능과 구연자의 개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비순차성은 민요라는 거대한 민중의 창작물의 미학을 더 살아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서술체가 현장론적인 생동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V. 結

위에서는 의미단락으로 구성된 문장들간의 구조적인 특징에 힘입어 구조화된 여러 주체 차원의 유형을 추출하고, 그 구조화를 살피며 전개되는 모습을 고찰하고자 했다.

29) 任東權, 「韓國民謠集」Ⅱ, pp.53-58. 이양요 54번

첫째, 한국민요의 유형구조를 기능성과 체계를 지닌 공유물의 관점에서 그 유형을 살펴보면 유형은 창작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구조화되고 있다. 유형구조의 정립은 이를 고려하여 세워져야 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며, 고정체계를 인정한다면, 주제 차원에서 일관성의 모델에 따라 구조를 찾을 수 있다. 공동제작에 의한 공유물로서의 공통개념 구조와 파생의 개념은 유형구조의 의미화에 참여하게 된다.

둘째, 유형구조는 전개 양상에 따라 의미의 병렬과 통합으로 구분되고 있다. 의미의 병렬은 하위구조적인 요소로 작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미의 병렬만으로도 독자적으로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며 통합체의 상위구조 속에서 큰 서술체를 구성하는 통합의 요소로도 작용한다. 통합의 구조는 상위구조로서 지역과 기능을 중심으로 수많은 소주제에 의해서 구성되어진다.

병렬체적인 구조는 기능상황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대부분 선후창에 의한 의미단락을 구성하고 있다. 기존의 체계와는 무관하게 현장에 따라 구연되는 것이다. 그 의미의 전개는 기능성에 대한 풀이, 작업 동작, 또는 작업 도구 묘사나 시간적인 묘사, 공간의 묘사, 구연당시의 날씨나 상황묘사, 창작 개인의 심경 등으로 구분된다.

통합체적인 구조의 발생은 가창구연의 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일어나는데, 한 창작에 의한 구연으로 여러 유형의 의미단락을 포용하는 경우와, 같은 지역·동일의 기연, 여러 창작에 의한 구연으로 구성되는 동일유형의 노래가 동일한 서술체로 이루어져 추상적인 요소와 구체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전자는 고정개념으로 주제의 역할을 하며 후자는 비고정적인 요소로서 창작에 의한 개별성을 지닌다. 통합체 속의 상위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전자는 주지소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서술체 속의 상위구조로서 안정-고난-극복의 유형, 혹은 고난-좌절-해결의 시도-좌절을 취한다면, 그 하위에는 여러개의 의미단락이 이지소로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통합체적인 구조는 서사구조를 형성하거나 기능요 중에서도 거대한 공동체의 산물로 일정한 유형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본 서술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유형의 구조가 서술체의 원점지향이라고 한다면 구조 속에서 각 유형이 전개되는 과정 즉 서술체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유형의 실제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곧 상위 속에서 재현된 하위의 실체를 찾으면서 사설의 전개양상과 구연의 역학을 찾는 것이다.

넷째, 유형의 전개는 이중성을 띠는데 순차적이거나 상황적이다. 순차적인 전개는 시간에 의한 순차성과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론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상황적인 전개는 기능성에 따르는 상황의 묘사로 시공의 반영, 자아의 주관과 임의성·우연성에 의해 주변이 부각되어 반영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개별적인 서술체의 분석으로 보완될 것이다.